

## 외세에 맞서 주체성 높인 '호국의 성지'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지...박정희 친필 항몽순의비 세워져

데스크승인 2014.02.20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유럽·아시아를 정복한 원나라(몽골)는 1231년부터 30년간 7회에 걸쳐 고려를 침략했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를 임시 왕도로 정해 몽골에 저항하다 끝내 굴복하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1271년(원종 12) 6월 배중손 장군이 이끄는 삼별초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기 위해 군사를 규합하고 대몽 항전을 결의했다. 삼별초군은 남하해 진도의 용장성을 근거지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끝내 배중손은 전사했다. 김통정 장군은 잔여부대를 이끌고 제주로 들어왔다.

이들은 향파두리에 토성(土城)을 쌓고 버텼지만 1273년 6월 여·몽 연합군에 의해 진압됐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지'는 원나라의 침략에 맞서 항거한 삼별초의 최후의 보루였다. 외세 침략에 결사 항전해 민족의 주체성을 높인 상징성을 띤 이곳을 정부는 1997년 사적 제396호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향파두리를 '호국의 성지'로 정비할 것을 지시해 이듬해 6월 마무리됐다. 향파두리 복원의 출발이었다.

현재 돌담으로 쌓인 사각형의 향파두리 내성에는 당시 박 대통령이 친필로 제자(題字)를 쓴 항몽 순의비(抗蒙殉義碑)가 세워져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특사였던 고(故) 김용순 노동당 비서는 2000년 9월 향파두리를 찾아 삼별초 항쟁을 기리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항몽순의비의 서편에는 항몽유적지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700여 년 전 대몽 항전을 그린 기록화 7점과 이곳에서 발굴된 기와편, 도자기류, 주춧돌, 절구통 등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향파두리 외성은 천혜의 요새 지형을 십분 활용한 토성이 장타원형 모양으로 쌓여 있다. 성의 둘레는 약 6km에 직경은 장축 1.45km, 단축 0.66km이고 면적은 113만5476㎡에 달한다.

향파두리란 말의 연원은 '항(독)에 죽 돌린 가장자리'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있다. 그런가 하면 여·몽 연합군과 관련한 해석도 있다. 몽골은 공을 세운 장군에게 '바투(큰 용사)' 호칭을 부여했는데, 여·몽 연합군 홍다구(洪茶丘)의 전공을 기린 '홍바투성'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향파두리 성 주변에는 삼별초와 관련된 '살 맞은 돌'과 '장수물', '웅성물', '옥터', '파군봉' 등 유적과 지명들이 여럿 분포해 고려 대몽 항쟁의 마지막 항전지란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제주시는 2010년부터 항몽유적지 발굴조사를 벌여왔다. 2012년에는 항몽유적지 종합 정비계획이 수립돼 2016년까지 발굴조사 21억원, 토지 매입 11억원, 정비 39억원이 투입돼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삼별초의 많은 비밀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향파두리 항몽유적지와 함께 강화도의 고려도성, 진도의 용장성 등 삼별초가 거쳐 간 3곳 섬 지역을 묶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만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